

민주 '전대 룰' 싸움 끝 안보이네

4자 회동서도 합의 못해... 전준위 투표로 결정

구 당권파·486 "집단지도체제 도입엔 당무위서 거부"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5일 밤 늦게 표결을 통해 전당대회 룰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전준위가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더라도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 각 당권 주자 및 계파 간의 입장 차이 갈릴 수밖에 없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준위 4인소위 위원인 김동철 의원은 5일 "지난 이틀 동안 전당대회 룰에 대한 각 계파 간의 입장 조율에 나섰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4인 소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한 내용을 전준위에 보고했고 전준위는 오늘 밤 이를 토대로 표결을 통해 전당대회 룰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4인 소위는 지도부 선출방식과 관련, 당원 여론조사

와 대의원 투표제를 섞는 '혼합형'을 전준위에 추천했다.

다만, 당원 여론조사의 경우 전체의 40%를 반영하는 안과 30%를 반영하는 안을 놓고 이견이 있어 이를 전준위에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 입기와 관련, 4인 소위는 대선 1년 전에 대권 주자가 사퇴하는 안과 대표의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안을 투표로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차기 지도부의 총선 공천 행사는 원칙적으로 하층하위 독립적인 기구를 당 외부에 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도부제 문제와 관련, 4인 소위는 순수집단지도체제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가운데 한 가지를 전준위에서 표결로 정하고 순수집단지도체제가 채택될 경우, 대표의 권한을 단일 집단지도체제 만큼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의원의 1인 1표 및 1인 2표제와 관련해서는 지도부제 결정된 이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이 결정될 경우,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한다는 점에서 1인 2표제가 유력시되며, 순수 집단지도체제의 경우에는 1인 1표제와 1인 2표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4인 소위의 절충안이 과연 전준위에서 원만하게 표결로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각 대권 주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4인 소위의 절충안에 대한 전준위의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사 표결을 통해 전당대회 룰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4인 소위의 절충안이 윤곽이 드러나면서 각 당권 주자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유불리를 거론하는 등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구 당권파 및 일부 486 진영에서는 5일 전준위에서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될 경우, 6일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일부 당권주자 진영에서는 전준위의 전당대회 룰 결정이 특정 주자에 유리하게 정해질 경우, 전당대회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준위가 각 계파별 안배를 통해 구성된다면 전당대회 보이콧 등을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준위가 표결을 통해 전당대회 룰을 정한다는 점에서 결과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생현장정치 기동한 박지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전병헌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5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SSM 입점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현장을 방문, 소상공인들과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4대강 '뜨거운 감자'로

정기국회 본격화... 여야 최대 쟁점은 친서민 정책·SSM 법안 등 치열 예고

정기국회가 6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가운데 개헌과 4대강 사업, 친서민 경쟁 등이 하반기 정국을 뜨겁게 달궜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주 지난해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에 이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0월4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곧바로 새해 예산안과 정책방안 심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분수령은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개헌론과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개헌론은 정기국회 개회가 시작된 지난 1일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 발언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5일 "개헌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사가 주도해서는 안 되고 여야가 공동으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번주부터 아마도 (국회 내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내년에는 대권레이스가 진행되고 대권주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설치하고, 곧바로 새해 예산안과 정책방안 심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사업에 집중된 예산을 민생과 서민 예산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4대강 국회'로 규정하고, 국회 내에 '4대강 검증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간 친서민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서민경제 살리기'와 '지역경

제 활성화'를 정기국회 5대 목표 중 하나로 내세우며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번 국회를 '평범한 국민을 위한 대안국회'로 규정하고 서민을 위한 수권정당의 면모를 확실히 보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생희망 40개 법안'을 선정,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 간 대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과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 북한인권법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 처리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었지만 SSM 가맹점주 사업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놓고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당권주자 '키워드' 경쟁

丁, 큰변화·鄭, 담대한 진보·孫, 대선승리 지도부

민주당의 10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7~8일)이 이를 앞둔다.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예정이다.

우선, 박주선 전 최고위원은 6일, 손학규 전 대표는 7일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또한, 정세균 전 대표와 정동영 상임고문, 천정배 의원은 7일 또는 8일에 출마를 선언할 방침이다. 김효석 의원의 경우 지난 8월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실현하기 위한 키워드는 저마다 다르다.

정세균 전 대표는 '큰 변화(Big Change)'를 내세우고 있다. 과감한 외부 인사 영입과 젊은 인재 육성, '통큰 연대'를 통해 대선 승리를 위한 관과 후보군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담대한 진보'와 '강한 민주당'을 제시하고 있다.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진보적인 정체성을 선명히 하고 당의

정통성을 계승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손학규 전 대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이끄는 지도부'를 내세우고 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바꾸고 책임지고 총선을 치른 뒤 대선에 나서야 야당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박주선 전 최고위원은 '제2의 창당으로 정권교체'를 내걸었다. 지도부의 인적 구성을 포함한 당의 근본적 변화만이 대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정배 의원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추창하고 있다. 정의는 이 시대의 국민적 요구며 여기에 사회와 경제, 정치의 민주화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효석 의원은 '탈이념 생활정치'를 내세우고 있다.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해야 하며 당의 분열을 막고 정권 창출을 위해서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

임태희·정진석·홍상표·김두우

청와대 '新4인방' 급부상

지난 7월 초 출범한 제3기 청와대에 '신(新) 4인방'이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이자 여권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 4인방'으로 불리는 주인공은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김두우 기획관리실장.

이전 청와대의 핵심 4인방이었던 정정진 전 대통령실장, 박형준 전 정무수석, 이동환 전 홍보수석, 박재만 전 국정기획수석의 공백을 빠르게 메우면서 초기부터 많은 분야에서 기대를 넘는 성과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임 실장은 '조용한 카리스마와 조정력', 홍 수석은 정확한 분석력, 정 수석은 강한 추진력, 김 실장은 기민한 순발력이 각각의 특징으로 꼽힌다.

이런 개인기는 물론 탄탄한 팀워크와 긴밀한 협업 시스템을 통해 뼈대대는 소리가 없어 여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조용하지만 강한' 참모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우선 임 실장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야당 및 여당내

친박계 등과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조정능력을 발휘, 6·2 지방선거 참패로 침체했던 여권의 진흥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구원투수'로서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회동을 통해 긍정적 방향으로 관계를 회복할 계기를 만들도록 물밑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고, 이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핵심기조로 천명한 '공정한 사회'의 개념도 처음 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버리고 이 대통령을 돕고 나선 정진석 정무수석도 언론계와 3선 의원을 거치면서 쌓은 '내공'과 넓은 인맥, 정파에 얽매이지 않는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여야 계파를 가리지 않는 광폭 행보를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오랜 언론계 경력과 냉철한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과 기류 전달에 주력함으로써 언론 보도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연합뉴스

야5당 장외집회 '조현오 사퇴' 촉구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과 노무현재단은 지난 3일 시내 보신각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와 발원 논란을 빚은 조현오 검찰청장의 사퇴 및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이날 "결산을 위한 국회 상임위에서는 부

적격 장관 및 청장에 대해 반드시 추궁하라고 했다"며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을 보면 한 놈만 패야 한다고 하는데 난다 패면서도 특히 조 청장을 집중적으로 패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명계와 관련해 자신이 있으니 임명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에 대

해 "참을 수 없어 내가 '벌금을 하자'고 했다더니 정부와 여당 고위층 인사들이 '홍 최고위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과한다. 앞으로 그런 말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무현 이장희 대표는 "(조 청장이) 이미 자기 죄를 자백했으니 수사하는 게 공정한 사회"라고 했고,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조 청장을 검찰은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상 발크림 출시!! 약국판매용

튼살!! 굳은살!! 각질제거!!

무릎, 팔꿈치, 복숭아뼈, 발뒤꿈치 케어크림

거칠고 자주 트는 발을 매끈하게

소비가가 ₩10,000

점포있으신 분, 취급하실 분 무자본(판매케이스와 발크림드립니다)

유사업종 가계하신분이나 사람이 많이 오가는 업종 하신분 환영! 절찬리 판매중!!! 지금은 필요없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신비의 약초

래년! 한방에 3일 10일 다이어트 3kg~5kg 아랫배 썩~ 굵지 않습니다!

효과없을시 100%환불 1개월분 5만원 (백배무료배송)

영양달라모집 1시간 투자 월200만가능, 투잡,겸업가능

취급점, 대리점 및 창업자 모집중!

네이버카페 또는 다음카페에서 '유한바이오텍' 검색하세요!

YH 유한바이오텍

062) 954-5046 010-4624-5046 010-8364-1496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한식·양식·중식·일식·패밀리레스토랑·호텔

민속촌(주) 무진주

갈비전문점 민속촌(주)와 보쌈전문점 무진주는 2011년 3월 1일 광주 상무점 개점을 앞두고 아래와 같이 본사관리자(경영지원부) 및 영업(써빙), 조리부 경력자와 신입직원 및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모집직무	연봉	자격	특별우대조건
본사/경영지원부	인사, 교육, 구매, 총무, 경리, 홍보 마케팅, 주사관리부	연봉후 결정	해당분야 경력자(입종분) 및 초보자는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년제 정규대학교 졸업자 (전공불문)
	점장	연봉 3천만원 이상	외식산업(식당) 근무 경력자 (한식, 양식, 중식, 일식, 패밀리 레스토랑 등 입종분)	외식산업(식당) 경력자 (한식, 양식, 일식, 중식, 패밀리 레스토랑, 기타 근무경력 모두 경력 가산점 인정)
영업장/경영부서	점장	연봉 2천 2천만원 이상	연봉 2천 2천만원 이상	2년제 이상 대학 외식산업관련학과(외식경영학, 호텔조리학, 조리학, 식품영양학, 관광학, 호텔경영학, 기타) 졸업자
	아르바이트	연봉 후 결정	초보자 및 경력자	해당분야 자격증, 면허증, 수료증 소지자 우대
조리부/생산부서	조리관리자 (주방장, 부주방장)	연봉 2천 6백만원 이상	외식산업(식당) 경력자	외식산업(식당) 근무 경력자
	청소, 발도, 육부, 텀 맨, 세척직원	연봉 후 결정	초보자 및 경력자	

1차: 서류 접수기간: 2010년 9월15일(수) 17시 까지 -전형방법: 1차 e-메일로 면접수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 (전공 및 주특기 소개 필수), 연락처기재, 지원부서 (희망연봉 기재)

2차: 면접 전형 (1차 이메일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영업장 써빙(홀 직원)과 아르바이트 지원자는 이력서만 접수(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

문의 및 e-메일 접수: focham@naver.com 문의전화: 011-9766-3392, 062-224-8071 (이메일 사용법을 모르는 분만 전화로 상담합니다)

대지갈비 전문점 **민속촌(주)** 보쌈 즉발 전문점 **무진주**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73-2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1-4